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일손부족 문제 해결

민선 8기 고창군이 지역 농촌 3대 현안과제인 소득과 일손, 복지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올해 1,5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예정되면서, 일손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고창군의 올해 농촌인력 정책을 살펴봤다.

“정말 친동생, 친형제처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정말 잘해줄거예요”

지난 26일 오후 고창군 무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60여명이 모여 군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고용농가 순회 사전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달말까지 진행될 교육에는 고구마, 수박, 블루베리, 배추 등을 재배하는 276개 농가가 참여한다. 교육에선 계절근로자의 부당대우와 임금체불, 숙소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 안내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고구마 재배 농가는 “지난 겨울 없는 농촌 살림에 화장실을 바꾸고, 온수 샤워실도 마련했다”며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일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고 환하게 웃었다.

▲사상 최대 외국인계절근로자 맞이 준비 한창

어느새 고창군 농촌현장의 천군만마가 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1600명을 배정받았고, 3월 9일 캄보디아 100여명 입국을 시작으로 올해전체 계절근로자 입국 예정인원은 무려 1,5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입국한 전체 계절근로자 600명의 2배를 뛰어넘고, 고창군 성승면(1,677명)의 전체인구와 맞먹는다.

사상최대 인력 수급에 고창군 곳곳에서 준비가 한창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교육이 진행중이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를 각 나라별로 번역한 언어소통책자도 제작했다. 군은 인력지킴이 전문관 공무원 2명을 채용해 1일 2농가 방문을 통해 고충상담,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읍내 곳곳에선 벌써부터 작업복과 현지 음식을 가져다 놓는 상점도 눈에 띄고 있다. 고창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존재다. 지역 곳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식료품점과 음식점, 주점 등이 들어서고 있고, 활력을 잃어가던 전통시장의 장날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붐비길 기대하고 있다. 농협 등 지역 은행에서는 외국환거래로 새로운 사업영역이 확장되는 장점이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 내달 준공

내달 9일부터 캄보디아 성실근로자 100여명 입국 등 올 총 1500여명 고창서 일해 고용농가 교육 진행 등 지역 곳곳서 준비 한창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마무리 단계... 내달 준공

산재보험·성실근로자 항공료 통역지원·무료건강검진 등 근로자 기본 권리보장 나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정착도 2월 현재 안정적으로 준수중

공... 지친 노동 끝에 편안한 휴식

다음달 준공을 목표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도 막바지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신면에 연면적 950.4㎡ 규모로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안정된 주거공간과 단체 생활을 통한 빠른 현지 적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농업인도 가까운 곳에서 부족한 농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센터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쉼터도 설치됐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외국인들이 직장 내 적응력 향상을 돕고 산업재해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담을 통해 노사갈등과 인권 침해 문제 등도 해소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의 지원 사업으로 △산재보험(4명기준 농가당 85~100



외국인 계절근로자 쉼터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만원-전액지원) △마약검사비(1농가당 3만원-전액지원) △성실근로자 항공료(편도-25%/인당 25만원) △통역지원(2명-베트남, 캄보디아) △무료건강검진 △사랑의 헌 옷 나눔행사 △

농업 근로자 인건비 안정화



관내 주요관광지 견학 등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힘을 계획이다.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정착에 앞장

고창군은 지난해 4월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 다짐 행사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농협조합장, 농업인단체장, 이장단협의회장, 일자리협회 고창군지부 등이 참여했다.

또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를 제시해 오고 있다.

군은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적정 인건비를 잘 지킨 농

민에게는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남성은 하한 11만원~상한 13만원으로 하고, 여성은 하한 9만원~상한 11만원으로 결정됐고, 다행히 2월 현재 안정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농어인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력확보에 더욱 힘쓰겠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역에 잘 정착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해 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기에 가장 좋은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군산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여기는 군산입니다**

‘아이키움, 청년키움, 가정키움, 지역키움’ 4대 분야의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지향을 통해 출산·보육·교육환경 지원과 청년 문화 육성 및 시민의 정주문화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으로 청년이 일하기 좋고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여기는 군산입니다.

